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또래관계성향 및 관계유지노력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천 유 리

인천대학교

한 기 순

인천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이 또래관계성향, 관계유지노력, 학교생활적응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또래관계유형에 따라 일반아동과 영재아동이 학교생활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분석하여 영재아동의 긍정적인 또래관계성향과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한 5개의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재학생 중 단위학교 영재학급 아동 175명, 일반아동 179명을 대상으로 또래관계성향, 관계유지노력, 학교생활적응검사를 실시하여 각 변인들 간의 차이, 상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군집분석에 따라 또래관계유형을 제안하여 각 유형에 따른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영재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긍정적인 또래관계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있었다. 또래관계성향 및 관계유지노력과 학교생활적응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설명력이 있는 변인이 일반아동은 독립적 책임감적 또래관계성향, 영재아동은 동등적 수용적 또래관계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성향과 관계유지노력을 변인으로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군집이 제안되었고 각 군집의 성격에 따라 또래관계유형을 명명하였으며 군집유형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본 연구의 의의와 실용적 함의 및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기술하였다.

주제어: 또래관계성향, 관계유지노력, 학교생활적응, 초등영재

I. 서 론

최근 새학기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가장 큰 고민 1위는 ‘학업’, 그 뒤를 이어 2위가 ‘또래관계’인 것으로 조사되어(임용순, 2012) 요즘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또래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또래(Peer)란 연령이나 성숙수준이 비슷한 단계에 있는 아동으로 함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대상(Perry & Bussey, 1984)을 뜻하는 말이며, 학교에서의 또래는 주로 같은 학급 내의 아동, 넓게는 동 학년의 아동이다. 학교에서의 또래관계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지속되며 하루 중 많은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많은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특히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고 학년이 높아지면서 또래관계가 집단적 성격을 보이고 서열을 갖게 된다. 또한 또래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에게 미치는 또래관계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또래관계는 아동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권지숙, 2008; 송영혜, 2007). 특히 아동의 우울증, 자살률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왕따, 학교폭력(이슬기, 2011)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학교 내 또래관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또래관계는 영재아동에게 중요한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영재아동은 또래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과 개인 내적 요인에 의해 일반 아동들과는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된다(민진숙, 1997; 박승철, 2005; 봉희영, 2002; 이영철, 2009). 영재아동은 전체 집단 내에서 ‘영재’라 불리는 소수집단이다. 소수라는 것은 때로 보통의, 일반적인 것과는 구별되는 것처럼 인식되어 다른 아이들로 하여금 혹은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근거 없는 괴리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또한 영재학급과 일반학급에서 이중의 생활을 하게 되어 능력의 이질집단과 동질집단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단위학교 영재학급이 보편화됨에 따라 영재라는 호칭이 학교 또래관계 속에서 공식적으로 따라붙게 되어 또래관계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더불어 영재들은 그 독특성과 뛰어난 재능으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여러 곤란을 경험할 수 있다(송의열, 2002; 이주현, 1997; 조현철, 2010; 한성희, 2002). 영재는 높은 인지적인 요소와 사회·정서적, 신체적 발달의 불균형, 즉 비동시적 발달(Austin & Draper, 1981; Silverman, 1993; Terrassier, 1985)로 인해 불안, 갈등을 겪는 등 인지적, 정서적인 면에서 영재들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또래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학교생활만족,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ollingworth(1926, 1942)는 지능이 높은 영재들은 지적발달이 신체적 발달보다 먼저 일어나는 비동시성으로 인해 정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실제 최근 영재의 고민과 상담요구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의 결과 친구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한 상담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들이 또래관계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친구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친구들은 나를 잘난척하는 아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궁금하다.’, ‘친구들에게 더 많이 관심받고 싶다.’ 등 과 같이 영재아동이 가진 특수성에 따른 것들이 많았다(성희경, 한기순, 2011). 이것은 영재아동이 단순히 일반아동에 비해서 또래관계에 문제가 많다고보다 일반아동과 다른 성격의 문제를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래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 아동은 가출, 비행, 폭력 등 학교생활, 나아가 사회에 부적응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천성문, 1999), 영재아동의 경우 정서적 민감성으로 인해 이러한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사회적 고립, 자살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Delisle, 1992; Silverman, 1993; Webb, 1993).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 많은 학자들이 영재교육에 있어 영재성을 잘 이해하고 영재들의 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서와 사회성과 리더십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와 함께 영재에게 적합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신동, 이정규, 박춘성, 2009).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제25조, 제 29조)”에서 영재교육기관에 전문상담교사를 두어 영재아동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실제 영재아동을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의 전문화된 상담은 미미하고 대부분, 문제가 발생한 후이나 치료적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영재교육기관이 단위학교 수준으로 많아졌고 그만큼 수요가 늘었음에도 각 학급의 영재 담임교사가 영재아동 상담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방침만이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나 자료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이정규, 2007). 영재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 예방적 차원의 상담이 되기 위해서는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영재아동 개인의 성향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영재들에게 주요한 이슈인 또래관계성향이 이들의 학교생활적응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관련성을 밝히는 작업은 이들의 학교에서의 적응과 부적응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래관계성향은 또래와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아동은 또래관계를 형성할 때 저마다의 방식,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성향은 아동의 성공적인 혹은 부정적인 또래관계형성에 영향을 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서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성격특성과 대인관계성향,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조영란, 2005)가 있었지만 이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영재아동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또한 영재아동의 또래관계성향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김지혜, 2001)가 이루어졌지만 또래관계성향과 관련변인 간의 패턴이나 유형분석을 통한 영재들의 또래관계유형 탐색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또래관계성향, 관계유지노력 학교생활적응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 또래관계 유형에 따라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이 학교생활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밝혀내어 영재아동이 또래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특수한 문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영재아동의 또래관계 문제에 실질적인 공감과 도움을 주고자 한다. 영재교육의 관심과 범위가 확대되고 학교 내의 또래관계 문제가 심각성과 중요성을 가지는 시점에서 일반아동과 구별되는 영재아동의 또래관계성향을 파악하고 그것이 영재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영재들을 이해하고 이들의 적응을 돕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 소재 5개의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재학생 중 단위학교 영재학

급에서 수학, 과학 영재교육과정을 이수중인 학생 200명을 영재아동 집단, 영재학급에 속하지 않는 4, 6학년 학생 중 200명을 일반학생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집단으로부터 연구를 실시한 결과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설문결과를 제외한 354부만을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분포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또래관계성향과 관계유지노력, 학교생활적응에서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차이를 분석함에 있어 성별이나 학년이 변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별, 학년별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비율을 비슷하게 유지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분포 (N=354)

		영재	일반
남자	4학년	41	39
	6학년	59	55
여자	4학년	40	36
	6학년	35	49
합계		175 (49.4%)	179 (50.6%)

2. 연구도구

가. 또래관계성향

또래관계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할 측정도구는 아동의 대인관계성향을 검사하기 위하여 안범희(1984)가 제작한 측정도구를 지용근(1996)이 초등학생용으로 수정한 것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하위요인은 역할성향 영역에서 지배적-우월적, 독립적-책임감적; 사회관계 성향에서 동정적-수용적, 사교적-우호적; 표현성향에서 경쟁적-공격적, 과시적-자기도취적, 반항적-불신적으로 전체 5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문항내적 신뢰도는 .68에서 .82사이로 나타났다.

나. 관계유지노력

관계유지노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Langan(2001)이 제작한 친구관계유지전략 검사지를 권현진(2006)이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되 안면타당도에 따라 초등학생의 언어 수준을 고려한 쉬운 말로 풀어서 작성하였다. 권현진(2006)의 검사지는 Langan(2001)의 검사지에서 이성 친구관계와 혼돈할 수 있는 문항은 배제하고 14개의 하위요인을 4개의 하위요인으로 범주화하였는데 하위영역은 ‘개방하기’, ‘지지’, ‘활동 공유하기’, ‘긍정적 행동하기’이다. 또한 채점방식을 6점 척도에서 이성 친구관계와 관련된 항목요인을 삭제하면서 5점 척도로 수정하였다. 검사지는 전체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내적 신뢰도는 .77-.87로 나타났다.

다. 학교생활적응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할 도구는 홍삼익(1994)이 연구에 사용한 도구

를 이호선(2001)이 수정한 학교생활적응척도이다. 검사지는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으로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20문항이다. 채점방식은 5점 척도방식을 사용하였고 문항 내적신뢰도는 .66-.81로 보고되었다.

3. 자료의 처리

본 연구는 SPSS Ver. 11 통계프로그램에 의해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각 검사지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또래관계성향, 관계유지노력 및 학교생활적응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에서 또래관계성향, 관계유지노력,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에서 또래관계성향, 관계유지노력은 학교생활적응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는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끝으로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에서 또래관계성향, 관계유지노력 유형과 학교생활적응에 어떤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또래관계성향, 관계유지노력을 이단계 군집분석을 통해 군집화하였고 이를 one-way ANOVA를 실시하여 다양한 군집유형간 학교적응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III. 연구 결과

1.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또래관계성향, 관계유지노력,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또래관계성향, 관계유지노력,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t -검증 결과

변인	구분	N	M	SD	t
지배적우월적	일반	179	2.28	.52	-3.38**
	영재	175	2.48	.56	
독립적책임감적	일반	179	3.22	.59	-4.19***
	영재	175	3.48	.58	
사교적우호적	일반	179	3.62	.68	-3.15**
	영재	175	3.84	.62	
또래관계성향 동정적수용적	일반	179	3.46	.58	-3.60***
	영재	175	3.69	.59	
경쟁적공격적	일반	179	2.91	.64	-.626
	영재	175	2.96	.69	
과시적자기도취적	일반	179	2.76	.60	-2.35*
	영재	175	2.90	.58	
반항적불신적	일반	179	2.24	.67	-.687
	영재	175	2.29	.70	

관계유지노력	개방하기	일반	179	3.24	.94	-863
		영재	175	3.33	.89	
	지지하기	일반	179	3.27	.87	-2.49*
		영재	175	3.49	.81	
	활동공유	일반	179	3.16	.83	-2.09*
		영재	175	3.35	.87	
	긍정적행동	일반	179	3.88	.72	-3.25**
		영재	175	4.11	.62	
	전체	일반	179	3.42	.73	-2.44*
		영재	175	3.60	.66	
학교생활적응	담임교사적응	일반	179	3.44	.68	-5.50***
		영재	175	3.87	.75	
	학교공부적응	일반	179	3.46	.65	-6.19***
		영재	175	3.90	.67	
	학교친구적응	일반	179	3.53	.86	-4.01***
		영재	175	3.85	.65	
	학교규칙적응	일반	179	3.86	.72	-4.85***
		영재	175	4.21	.65	
	전체	일반	179	3.57	.56	-6.52***
		영재	175	3.96	.55	

* $p < .05$, ** $p < .01$, *** $p < .001$

분석결과 또래관계성향, 관계유지노력,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변인에서 영재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또래관계성향에서는 경쟁적 공격적 성향과 반항적 불신적 성향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영재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높은 평균을 보이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 두 성향은 모두 부정적인 성향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영재아동이 일반아동보다 평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독립적 책임감적 성향과 동정적 수용적 성향이다. 관계유지노력에서는 다른 변인들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개방하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긍정적 행동하기에서 집단 간의 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은 전체와 하위요인 모두 분명하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영재아동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2.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성별에 따른 또래관계성향, 관계유지노력,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가. 영재아동의 성별에 따른 또래관계성향, 관계유지노력,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영재아동의 성별에 따른 또래관계성향, 관계유지노력,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영재아동의 성별에 따른 *t*-검증 결과

변인	구분	<i>N</i>	<i>M</i>	<i>SD</i>	<i>t</i>	
또래관계성향	지배적우월적	남자	100	2.52	.59	1.08
		여자	75	2.42	.52	
	독립적책임감적	남자	100	3.44	.60	-1.11
		여자	75	3.54	.57	
	사교적우호적	남자	100	3.77	.60	-1.83
		여자	75	3.93	.63	
	동정적수용적	남자	100	3.56	.59	-3.42**
		여자	75	3.86	.56	
	경쟁적공격적	남자	100	3.02	.70	1.37
		여자	75	2.88	.66	
	과시적자기도취적	남자	100	2.83	.56	-1.99
		여자	75	3.00	.58	
반항적불신적	남자	100	2.41	.72	2.72**	
	여자	75	2.13	.63		
관계유지노력	개방하기	남자	100	3.13	.89	-3.43**
		여자	75	3.58	.83	
	지지하기	남자	100	3.34	.82	-3.09**
		여자	75	3.70	.75	
	활동공유	남자	100	3.21	.91	-2.54*
		여자	75	3.54	.78	
	긍정적행동	남자	100	4.02	.64	-2.47*
		여자	75	4.25	.57	
	전체	남자	100	3.45	.68	-3.48**
		여자	75	3.79	.59	
학교생활적응	담임교사적응	남자	100	3.74	.78	-2.65**
		여자	75	4.03	.68	
	학교공부적응	남자	100	3.83	.70	-1.64
		여자	75	3.99	.63	
	학교친구적응	남자	100	3.73	.62	-2.79**
		여자	75	4.01	.66	
	학교규칙적응	남자	100	4.14	.68	-1.92
		여자	75	4.32	.60	
전체	남자	100	3.86	.55	-2.83**	
	여자	75	4.09	.52		

$p < .05$, ** $p < .01$, *** $p < .001$

또래관계성향에서는 동정적 수용적 성향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영재 여학생의 평균이 더 높았고 반항적 불신적 성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영재 남학생의 평균이 더 높았다. 관계유지노력에서는 전체평균과 하위요인에서 모두 여학생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더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학교생활적응에서는 전체평균에서 여학생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더 높은 평균을 나타냈고 하위요인에서는 담임교사적응과 학교친구적응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나. 일반아동의 성별에 따른 또래관계성향, 관계유지노력,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일반아동의 성별에 따른 또래관계성향, 관계유지노력,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일반아동의 성별에 따른 t-검증 결과

변인	구분	N	M	SD	t	
또래관계성향	지배적우월적	남자	94	2.30	.48	.64
		여자	85	2.25	.58	
	독립적책임감적	남자	94	3.16	.60	-1.52
		여자	85	3.29	.58	
	사교적우호적	남자	94	3.50	.62	-2.55*
		여자	85	3.76	.73	
	동정적수용적	남자	94	3.34	.61	-3.06**
		여자	85	3.60	.53	
	경쟁적공격적	남자	94	2.99	.65	1.54
		여자	85	2.84	.63	
	과시적자기도취적	남자	94	2.71	.58	-1.04
		여자	85	2.80	.61	
	반항적불신적	남자	94	2.26	.58	.53
		여자	85	2.21	.76	
관계유지노력	개방하기	남자	94	2.99	.98	-3.91***
		여자	85	3.52	.81	
	지지하기	남자	94	3.07	.912	-3.46**
		여자	85	3.50	.76	
	활동공유	남자	94	2.91	.81	-4.49***
		여자	85	3.44	.77	
	긍정적행동	남자	94	3.74	.76	-2.91**
		여자	85	4.04	.65	
	전체	남자	94	3.20	.75	-4.28***
		여자	85	3.65	.63	
학교생활적응	담임교사적응	남자	94	3.30	.65	-3.03**
		여자	85	3.60	.68	
	학교공부적응	남자	94	3.35	.63	-2.35*
		여자	85	3.58	.65	
	학교친구적응	남자	94	3.32	.69	-3.46**
		여자	85	3.76	.96	
	학교규칙적응	남자	94	3.61	.68	-5.27***
		여자	85	4.14	.66	
	전체	남자	94	3.40	.54	-4.73***
		여자	85	3.77	.52	

p<.05, **p<.01, ***p<.001

일반학생의 또래관계성향에서는 영재학생의 경우와 다소 상이하게 사교적 우호적 성향과 동정적 수용적 성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여학생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관계유지

노력에서는 전체평균과 하위요인 모두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특히 하위요인 중 개방하기와 활동공유하기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에서는 전체 평균과 하위요인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을 나타낸 것은 영재집단과 유사했으나 학교규칙적응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은 영재집단과의 차별성이라고 볼 수 있다.

3.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에서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또래관계성향, 관계유지노력의 영향력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또래관계성향과 관계유지노력의 하위요인이 학교생활적응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5>과 같다.

<표 5>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영재와 일반아동의 중다회귀분석(영재 n=175, 일반 n=179)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영재	또래 관계성향	지배적우월적	.001	.084	.001	.006	.995
		독립적책임감적	.169	.069	.180	2.45	.016
		사교적우호적	.194	.073	.219	2.65	.009
		동정적수용적	.298	.079	.321	3.76	.000
		경쟁적공격적	-.006	.064	-.008	-.094	.925
		과시적자기도취적	-.132	.078	-.139	-1.67	.094
	관계 유지 노력	반항적불신적	-.071	.059	-.090	-1.19	.235
		개방하기	-.028	.060	-.045	-.46	.645
		지지하기	.098	.069	.144	1.41	.160
		활동공유	.054	.045	.085	1.19	.237
		긍정적행동	.057	.066	.064	.85	.394
		(상수)	1.425	.318		4.48	.000
		$R^2(\text{adj. } R^2)=.551(.521), F=18.17^{***}$					
일반	또래 관계성향	지배적우월적	.038	.088	.036	.43	.664
		독립적책임감적	.303	.070	.321	4.31	.000
		사교적우호적	.041	.081	.050	.50	.616
		동정적수용적	.253	.090	.264	2.81	.006
		경쟁적공격적	-.096	.070	-.111	-1.39	.167
		과시적자기도취적	.079	.084	.084	.95	.345
	관계 유지 노력	반항적불신적	-.106	.058	-.127	-1.82	.070
		개방하기	-.058	.066	-.097	-.88	.378
		지지하기	.045	.073	.070	.62	.539
		활동공유	.032	.053	.047	.60	.549
		긍정적행동	.115	.070	.149	1.64	.104
		(상수)	1.283	.251		5.11	.000
		$R^2(\text{adj. } R^2)=.513(.481), F=15.97^{***}$					

***p<.001

또래관계성향과 관계유지노력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학교생활적응을 종속변수로 하는 유의성 검정 결과, 영재아동은 독립변수들이 학교생활적응의 결정요인의 55.1%를, 일반아동은 독립변수들이 학교생활적응의 결정요인의 51.3%를 설명하고 있다.

영재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동정적 수용적 성향($B = .298, p < .001$), 사교적 우호적 성향($B = .194, p < .01$), 독립적 책임감적 성향($B = .169, p < .05$)이며 상대적 기여도는 동정적 수용적 성향, 사교적 우호적 성향, 독립적 책임감적 성향의 순서이다. 한편, 일반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독립적 책임감적 성향($B = .303, p < .001$), 동정적 수용적 성향($B = .253, p < .01$)이며 상대적 기여도는 독립적 책임감적 성향, 동정적 수용적 성향 순서였다.

4.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또래관계성향과 관계유지노력 유형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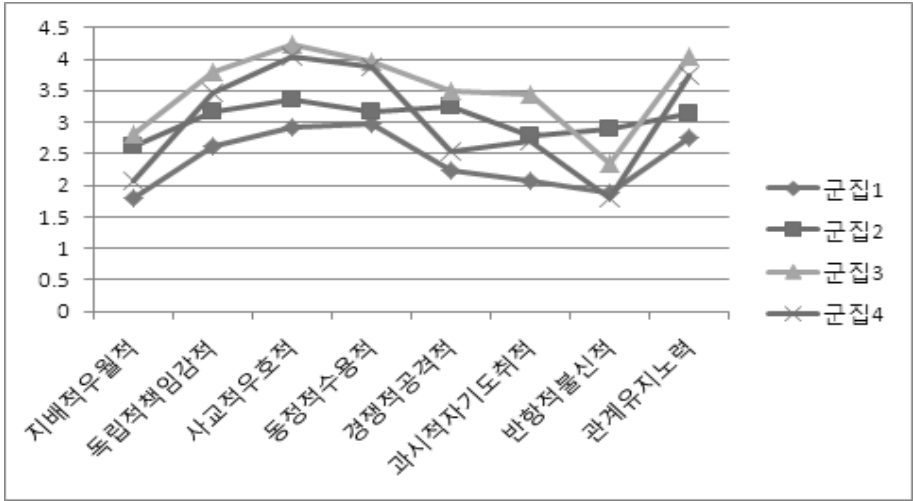
또래관계성향과 관계유지노력을 변인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덴드로그램 해석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4군집이 제안되었다. 다음으로 K-mean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해당 군집을 최종 분류하였다.

군집 분석의 내적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하위 군집을 독립변인으로, 군집변인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변인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이 모든 변인들에서 군집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군집별 군집 변인들의 점수결과를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표 6> 또래관계성향과 관계유지노력에 대한 군집 간 차이

구분	M(SD)				MS	F(df=2)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지배적우월적	1.79(.44)	2.62(.42)	2.81(.42)	2.08(.38)	16.36	97.45***
독립적책임감적	2.63(.49)	3.16(.40)	3.81(.50)	3.48(.50)	16.39	72.66***
사교적우호적	2.92(.60)	3.35(.45)	4.23(.40)	4.03(.47)	26.03	119.32***
동정적수용적	2.98(.49)	3.18(.40)	3.95(.44)	3.89(.46)	19.04	96.36***
경쟁적공격적	2.23(.48)	3.24(.46)	3.50(.52)	2.55(.45)	26.11	116.35***
과시적자기도취적	2.08(.39)	2.79(.44)	3.45(.42)	2.71(.40)	20.91	121.45***
반항적불신적	1.89(.45)	2.88(.57)	2.35(.56)	1.81(.47)	23.35	85.86***
관계유지노력	2.75(.61)	3.14(.50)	4.04(.50)	3.74(.57)	24.29	83.52***

*** $p < .001$



[그림 1] 군집별 또래관계성향과 관계유지노력 점수그래프

각 군집이 보이는 또래관계성향과 관계유지노력 점수를 고려하여 또래관계 유형을 ‘낮은 긍정-낮은 부정’(군집1), ‘낮은 긍정-높은 부정’(군집2), ‘높은 긍정-높은 부정’(군집3), ‘높은 긍정-낮은 부정’(군집4)으로 군집의 이름을 명명하였다.

군집 1은 또래관계의 부정적, 긍정적 성향 모두 낮고 관계유지노력 또한 낮은 집단으로 또래관계에 있어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서 ‘낮은 긍정-낮은 부정’군집이라 하고, 군집2는 또래관계성향 중 주로 부정적인 성향 즉, 지배적 우월적 성향과 반항적 불신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긍정적인 성향은 낮은 집단으로 또래에 대한 수용이나 우호적 행동, 배려나 양보보다는 자기 멋대로 행동하거나 폭력적, 반항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낮은 긍정-높은 부정’군집이라 명명하였다. 군집3은 반항적 불신적 성향을 제외한 모든 성향요인과 관계유지노력이 골고루 높게 나타나는 집단으로 또래관계에 욕심이 많고 사교적이고 수용적이지만 반면 지배적 우월적 성향과 과시적, 경쟁적, 공격적, 자기도취적 성향 또한 높아 자신들이 다른 또래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도움을 주거나 지시를 내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높은 긍정-높은 부정’군집이라 하였다. 군집4는 긍정적인 또래성향은 높고 부정적인 또래성향은 극단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집단으로 또래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교적으로 잘 지내면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드러내고 고집하거나 지시하기 보다는 받아들이고 동조하고 따르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높은 긍정-낮은 부정’군집이라고 명명하였다.

각 군집에 있어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영재아동은 34.9%로 가장 많은 아동이 군집4(높은 긍정-낮은 부정)에 포함되었고 일반아동은 31.3%로 가장 많은 아동이 군집2(낮은 긍정-높은 부정)에 포함되었다. 영재의 경우 군집 1에 속한 학생들

의 수가 가장 적었으며, 일반학생들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각 군집 내에서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이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이 거의 유사한 또래성향과 관계유지전략을 가지고 있어 각 군집마다 군집 내에서 다른 변인들에 상관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군집별 영재 및 일반 아동 분포

구분	군집1 n(%)	군집2 n(%)	군집3 n(%)	군집4 n(%)	전체
영재	15(8.6)	47(26.9)	52(29.7)	61(34.9)	175
일반	33(18.4)	56(31.3)	35(19.6)	55(30.7)	179
전체	48(13.6)	103(29.1)	87(24.6)	116(32.8)	354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군집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집을 독립변인으로, 학교생활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전체평균에 대한 영재아동의 군집별 차이는 <표 8>, 일반아동의 군집별 차이는 <표 9>과 같다.

<표 8> 영재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군집별 차이

구분	M(SD)				F	Scheffe
	군집1 (낮은긍정- 낮은부정)	군집2 (낮은긍정- 높은부정)	군집3 (높은긍정- 높은부정)	군집4 (높은긍정- 낮은부정)		
담임교사적응	3.16(.98)	3.55(.62)	4.11(.69)	4.07(.66)	12.486***	1,2<4,3
학교공부적응	3.63(1.01)	3.47(.56)	4.12(.57)	4.11(.57)	13.118***	2,1<4,3
학교친구적응	3.33(.66)	3.40(.54)	4.08(.58)	4.12(.53)	21.975***	1,2<3,4
학교규칙적응	4.23(.66)	3.79(.62)	4.37(.52)	4.41(.64)	11.050***	2<1,3,4
전체	3.59(.60)	3.56(.41)	4.17(.46)	4.18(.48)	22.882***	2,1<3,4

*** *p*<.001

영재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모든 하위요인에 대해서 군집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담임교사와 학교 공부에 대해서는 ‘높은긍정-높은부정’군집이 가장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친구와 학교 규칙 그리고 학교생활적응 전반에 대해서는 ‘높은긍정-낮은부정’군집이 가장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긍정-높은부정’군집과 ‘높은긍정-낮은부정’군집은 전반적인 학교생활과 하위요인에 대해서 높은 적응을 보였고 ‘낮은긍정-낮은부정’군집과 ‘낮은긍정-높은부정’군집은 상대적으로 낮은 적응 수준을 나타냈다.

<표 9> 일반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군집별 차이

구분	M(SD)				F	Scheffe
	군집1 (낮은공정- 낮은부정)	군집2 (낮은공정- 높은부정)	군집3 (높은공정- 높은부정)	군집4 (높은공정- 낮은부정)		
담임교사적응	3.08(.55)	3.16(.55)	3.87(.64)	3.68(.67)	16.541***	1,2<4,3
학교공부적응	3.02(.60)	3.29(.51)	3.86(.64)	3.64(.61)	14.954***	1,2<4,3
학교친구적응	3.04(.61)	3.24(1.08)	4.01(.56)	3.81(.60)	13.594***	1,2<4,3
학교규칙적응	3.57(.69)	3.58(.67)	4.26(.61)	4.08(.67)	11.758***	1,2<4,3
전체	3.18(.42)	3.32(.46)	4.00(.46)	3.80(.50)	27.819***	1,2<4,3

*** $p < .001$

일반아동에서도 학교생활적응과 모든 하위요인에 대해서 군집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하지만 일반집단에서는 ‘높은공정-높은부정’군집과 ‘높은공정-낮은부정’군집은 학교생활 전반과 모든 하위요인에서 일관적으로 높은 적응을 보였고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그 중에서도 ‘높은공정-높은부정’군집이 가장 높은 적응을 나타냈다. ‘낮은공정-낮은부정’군집과 ‘낮은공정-높은부정’군집은 마찬가지로 학교생활 전반과 모든 하위요인에서 낮은 적응을 보였고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낮은공정-낮은부정’집단이 가장 낮은 적응을 나타냈다. 영재학생 집단에서 군집별 적응 수준이 다소 혼재되어 나타난 반면 일반학생들에서는 군집별 적응 수준이 보다 일관되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또래관계성향, 관계유지노력, 학교생활적응이 어떻게 상관하는지 알아보고 또래관계유형에 따라 일반아동과 영재아동이 학교생활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또래관계성향과 관계유지노력,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또래관계성향 중 지배적 우월적 성향, 독립적 책임감적 성향, 사교적 우호적 성향, 동정적 수용적 성향, 과시적 자기도취적 성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경쟁적 공격적 성향과 반항적 불신적 성향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성향은 주로 긍정적인 성향이고 차이를 보이지 않은 성향은 주로 부정적 성향이었다. 이는 영재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긍정적인 또래관계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큰 차이를 나타낸 성향은 독립적 책임감적 성향과 동정적 수용적 성향이었는 데, 이는 높은 기대, 남과 다르다는 강한 자의식과 자신감, 높은 책임감 그리고 독자적 활동을 선호하는 영재의 정서적 특성(윤여홍, 2003; Karnes & Whorton, 1998; Schneider, Clegg, Byrne, Ledingham, & Crombie, 1989)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영재아동은 주변으로부터 성숙한 학생, 뛰어난 학생으로 인식되어 일반아동에 비해 높은 역할기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라 학급 내에서 선생님과 일반아동을 돕는 또래지위에 놓이게 되고 그 역할

을 수행하면서 스스로를 또래에 대해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 수 있다. 이는 이들이 독립적 책임감적 성향, 동정적 수용적 성향과 사교적 우호적 성향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배적 우월적 성향과 과시적 자기도취적 성향이 높다는 것은 또래관계에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영재어머니들의 고민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을 무시한다거나, 잘난척을 한다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대포장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ilverman, 1993). 다만 배려, 양보, 의사소통 등 다른 인성적 요인에 따라 지배적 우월적 성향은 리더십으로, 과시적 자기도취적 성향은 높은 자신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향이 긍정적으로 작용되도록 하기 위해 영재교육과정에 인성적 교육요소의 필요성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또래관계성향에 대한 성별의 차이는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에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남자에 비해 여자가 또래에 대해 동정적이고 수용적 성향이 높으며 다른 대부분의 성향들은 영재와 일반아동 모두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에서 차이를 보인 성향은 사교적 우호적 성향과 반항적 불신적 성향이다. 일반아동은 동정적 수용적 성향과 마찬가지로 사교적 우호적 성향이 남자보다 여자 아동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영재아동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일반아동과는 달리 영재아동의 반항적 불신적 성향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자영재아동의 반항적 불신적 성향은 남자일반아동에 비해서도 높았다. 남자영재아동의 반항적 불신적 성향이 극단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영재아동의 또래관계성향이 일반아동에 비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양상을 보였다는 점을 생각해보았을 때, 이 결과는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남자영재아동들은 그들의 창의적인 성향이 여학생에 비해 좀 더 부정적으로 드러나거나(예, 산만하거나, 비판적이거나, 비협조적이거나 등등) 혹은 상대방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이들이 반항적이고 불신적인 경향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영재아동의 상담을 실시할 때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영재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동정적 수용적 성향, 사교적 우호적 성향, 독립적 책임감적 성향이었고 이 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동정적 수용적 성향이었다. 사교적 우호적 성향과 동정적 수용적 성향은 모두 관계적 성향이다. 독립적 책임감적 성향은 역할적 성향으로 영재아동은 학교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또래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재아동이 또래에 대해 동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 즉, 또래의 실수나 약점에 너그럽고 또래의 처지나 감정을 헤아리며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학교생활에 적응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 인성 및 사회성훈련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기존에 영재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은 주로 리더로서의 자질과 관련된 덕목들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영재아동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적응을 위하여 이해와 공감, 배려, 동정과 같은 덕목에 더욱 무게를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또래관계유형은 ‘높은긍정-높은부정’, ‘높은긍정-낮은부정’ 군집으로 이는 영재아동과 일반아동 모두에게 해당하였다. 두 군집은 모두 긍정적 또래관계성향이 높은 또래관계유형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데에는 부정적 성향보다 긍정적 성향이 더 결정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따라서 아동의 또래관계유형을 진단하여 학교생활적응을 돕고자 할 때에는 이들의 부정적 성향을 줄이는 것보다는 긍정적 성향을 높이고 강화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 및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이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함의한다.

여섯째, 각각의 또래관계유형 군집에 소속된 비율이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또래관계유형이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에서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서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또래관계유형이 일반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과 같은 또래관계유형에 속한다 하더라도 학교생활적응은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아동의 또래관계유형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할 때 영재 여부에 따라 접근 방향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함의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지역마다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및 운영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영재아동으로 일반화하여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표집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단위학교 과학 영재학급을 수료중인 아동을 영재집단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표집에 있어 고도영재, 미성취영재, 인문영재 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몇 가지 기술하면, 첫째, 또래관계성향 중 영재아동의 긍정적인 학교생활적응에 영향력이 높은 동정적 수용적 성향, 사교적 우호적 성향, 독립적 책임감적 성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상담 및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단위학교 영재학급에 수료중인 아동을 영재집단으로 선정하였으나 일부 고도영재나 미성취영재, 언어적 혹은 예술적 능력이 특수하게 뛰어난 영재아동은 상이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Danber & Benbow, 1990). 따라서 보다 다양한 특성과 수준을 보이는 영재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관련 주제를 탐색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이 연구에 도출한 네 가지 군집유형에서의 또래관계 성향과 학교생활 적응을 질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으로 사료된다. 네 가지 군집유형 학생들의 관계성향이 실제로 교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이것이 실제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현장 관찰 및 사례 분석이 이 주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한 네 가지 또래관계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은 현장에서 유용할 수 있다. 영재적 특성을 반영한 또래관계유형 검사는 영재아동의 또래관계특성과 학교생활적응 측면의 이해를 돕고 유용한 상담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지숙 (2008). **영재의 완벽주의 특성과 또래관계 성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권현진 (2006). **중학생 단짝 친구관계에서의 유지 전략과 만족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지혜 (2001). **영재의 또래관계와 학교생활 적응**.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민진숙 (1997). **영재의 또래 지위와 자기지각**.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박승철 (2005). **초등학교 과학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또래관계 및 자기효능감 비교**.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봉희영 (2002). **초등학교 영재아동의 교우관계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성희경, 한기순 (2011). 영재의 고민과 상담요구에 대한 개념도 분석. **청소년학연구**, 18(9), 309-336.
- 송영혜 (2007). **또래관계: 진단과 치료**. 서울: 집문당.
- 송의열 (2002). 영재 아동의 사회 정서적 특성과 스트레스 대처 행동의 이해. **영재와 영재교육**, 1(2), 69-95.
- 안범희 (1984). **대인관계 적절성과 성향검사의 타당도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윤여홍 (2003). **영재상담과 진로지도**. 박성익, 조석희, 김홍원, 이지현, 윤여홍, 진석언, 한기순 외. 영재교육학원론 (pp. 483-520). 서울: 교육과학사.
- 이신동, 이정규, 박춘성, (2009). **최신영재교육학개론**. 서울: 학지사.
- 이슬기 (2011). **자살상담 받는 초등학생 2.6배 증가**. 헬스조선(11월 4일).
- 이영철 (2009). **초등학교 수학 영재의 일반학급과 영재학급에서의 교우 관계와 학교생활 적응 비교**.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이정규 (2007). **영재학급 · 영재교육원 운영실태 및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주현 (1997). **영재아의 학교적응과 사회성숙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호선 (2001). **아동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임용순 (2012). **새학기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아시아투데이(2012년 3월 7일).
- 조영란 (2005). **5요인 성격특성과 대인관계성향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조현철 (2010). 영재학생들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학교적응, 스트레스정도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간 관계. **영재와 영재교육**, 9(1), 121-140.
- 지용근 (1996). **인간관계훈련이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 천성문 (1999). **신경증적 비행청소년의 분노조절을 위한 인지 행동적 집단치료 효과**.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한성희 (2002). **영재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홍상임 (1994). **국민학교 1학년 아동의 성별 및 지적능력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Austin, A. B., & Draper, D. C. (1981). Peer relationships of the academically gifted: A review. *Gifted Child Quarterly*, 25(3), 129-133.
- Danber, S. L., & Benbow, C. (1990). Aspect of personality and peer relations of extremely talented adolescents. *Gifted Child Quarterly*, 34, 10-15.
- Delisle, J. R. (1992). *Guiding the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gifted youth*. New York: Longman.
- Hollingworth, L. S., & Fleming, E. S. (1926). *Gifted children: Their nature and nurture*.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Hollingworth, L. S. (1942). Children above 180 IQ Stanford-Binet: Origin and development. New York: World block.
- Karnes, F. A., & Whorton, J. E. (1998). Attitudes of intellectually gifted youth toward school. *Roeper Review*, 10, 173-175.
- Langan, E. J. (2001). *A friend like you: Attachment and maintenance strategies in young adult friendships*. Arizona: Arizona State University.
- Perry, D. C., & K. Bussey. (1984). *Social development*. New Jersey: Prentice-Hall.
- Schneider, B. H., Clegg, M. R., Byrne, B. M., Ledingham, J. E., & Crombie, G. (1989). Social Relations of gifted children as a function of age and school program.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 48-56.
- Silverman, L. K. (1997). Family counseling with the gifted. In Colangelo, N., & Davis, G. A. (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2nd ed., pp. 307-320). Boston: Ally & Bacon.
- Terrassier. J. C. (1985). Dyssynchrony-uneven development. In J. Freeman (Ed.), *The Psychology of Gifted Children* (pp. 265-274). New York: John Wiley & Sons.
- Webb, J. T. (1993). Nurturing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gifted children. In K. A. Heller, F. J. Monks, & A. H. Passow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iftedness and talent* (pp. 525-538). Oxford: Pergamon Press.

= Abstract =

The Relationship Among Peer Relation Disposition, Relationship Maintenance effort and School Adjustment of Gifted students and Non-Gifted students

Yu-Ri Chun

University of Incheon

Ki-Soon Han

University of Inch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peer relation disposition, relationship maintenance effort and school adjustment of gifted students and non-gifted students. And then the final purpose of the study is to give suggestions to help improving gifted students' peer relationship and their school adjustment. For the study, 175 gifted students and 179 non-gifted students in grades 4 and 6 of 5 elementary schools in urban areas were assessed on their peer relation disposition, relationship maintenance effort and school adjustment.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gifted student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non-gifted students as a whole. Second, in the correlation among peer relation disposition, relationship maintenance effort and school adjustment, peer relation disposition and relationship maintenance effort showe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all the subvariables of school adjustment. Third, Sympathy-Acceptance disposition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for gifted students, and Independence-Responsibility disposition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for non-gifted students. Finally, the cluster analysis results based on the peer relation type of the gifted and the non-gifted suggested four meaningful clusters. And the four clusters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ces with all the subvariables of school adjustment.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in depth related to the gifted education practices.

Key Words: Gifted, Peer relation disposition, Relationship maintenance effort, School adjustment

1차 원고접수: 2012년 11월 16일
수정원고접수: 2012년 12월 21일
최종게재결정: 2012년 12월 21일